

쁘렘잔드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와 신채호의 <디구성미리몽>의 비교 연구

아프잘 아흐메드 칸
(경북대학교)

목차

1. 서론
2.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와 인도의 식민 문화 양상
3. <디구성미리몽>과 한국의 식민 문화 양상
4. 인도와 한국 작품의 탈식민성 비교 연구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인도와 한국 식민지 시대의 식민 문화 양상에 대해 분석 및 비교하는데 목적을 둔다. 식민지 시기에 일어난 문화 현상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는 듯한 과거의 식민 양상들이 사실은 현재에도 불변의 모습으로 유지되는 데에서 확인될 수 있다. 식민지 시대는 비록 100년 이상이나 지났다 하더라도 식민지 시대의 문화 양상에 대해 연구하는 보다 의미 있는 이유는 당시에 형성된 정치, 경제, 종교, 인종, 사상 등 문화 양상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지배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곧, 식민자의 정복과 피식민자의 식민화가 시작된 18, 19세기부터 독립 이후인 20, 21세기인 현재까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에 오가던 식민적 문화 양상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영국에 의해 거의 200년의 식민 역사를 가졌다. 한국은 일본에 의해 거의 35년쯤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다. 두 나라는 현재 독립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동안에 경험한 식민 양상이 현존하지 않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간의 식민 문화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잔류한 식민 양상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당시 식민지 시대의 식민 문화 양상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식민 양상에 대해 우리는 식민지 시기의 애국 문학가들이 창작한 작품의 내용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인도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연구는 넘쳐나고 있다. 또한,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 비교 연구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와 한국 간

의 외교 관계는 본격적으로 1973년부터 시작하였고 그 후부터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나라의 비교 문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활발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와 한국의 식민 시대 문학의 비교 연구는 칸, 아프잘 아흐메드¹에서의 반제국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작가 의식과 소설 내용의 분석에만 그친다. 이렇듯 기존연구에서 식민 문화의 양상, 곧 식민자의 통치 수단과 피식민자들의 각성 및 식민지에서 벌어진 불평등 및 차별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식민자와 피식민자에게 가져온 영향에 대해 깊이 분석한 연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전부 탈식민 입장에서 봐야 할 식민의 문화 양상이다. 우리는 탈식민 시각에서 과거 식민의 양상을 바라보아야 현재의 문화 양상에 대해 더욱더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탈식민주의 비평(Postcolonial criticism)은 식민 통치 하에 각 다른 국가 지역에서 나타난 문화 특징과 문학 현상을 연구하는 문화연구이다.² 특히 피식민자로서의 민족나라들의 각성을 중요시한다. 파농³에 따르면 탈식민 국가의 슬픔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난 뒤,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공백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허위 양상도 남겼다는 것이다. 곧, 해방, 자유, 평등 과 같은 허위 양상을 말한다. 사이드⁴는 동양주의를 제시하였고 탈식민 비평에 있어 초점을 식민자, 즉 제1세계들로 맞추어 그들이 어떻게 제3세계에서 가짜의 공의, 정의의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피식민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분석한다. 그 후에 인도에서 자란 호미 바바⁵는 영국식 교육을 받았고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식민의 시각에서 출발해 파농과 사이드와 달리 양가성(ambivalence), 혼종성(hybridity), 흉내(mimicry) 등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식민 제도 하에서 생긴 차별화와 불평등한 문화 현상을 바라보거나 분석하는 데 큰 의미를 제공해 준다.

오늘 날 한 나라, 한 사회의 변화, 갈등 및 미래의 동향은 식민지 양상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와 한국은 과거에 식민자에 의해 지배를 받았었고 현재에도 정치적 이유로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한 나라의 탈식민적 연구는 그 나라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식민지 시대에 대한 탈식민적 비교 연구는 반드시 똑같이 통일의 결실을 기다리는 양국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직접적인 해답을 주는 중요한 일환이다. 이는 두 나라, 즉 인도와 한국의 탈식민적 비교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범위를 식민지 시대의 식민 문화 양상에 제한하고자 한다. 곧, 식민지 시대의 식민자의 수단, 피식민자의 각성, 양자의 관계 및 서로 끼친 영향들이 현재 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적 측면에 있어 탈식민 시각과 아울러 식민지 시대의 문학 작품을 서술하는 방식을 지양한다. 오늘 날의 미완성한 여러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¹ 칸, 아프잘 아흐메드, <신채호와 뽀렘짚드 소설의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1.
 _____, <‘디구성미리몽’의 비교 연구>, 제8회 세계한국학 워크숍, 민족문화원, 고려대학교, 2012.

² 피터 차일즈 외,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³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 Grove Press, New York, 2008, 참조.

⁴ Said, Edward W., *Orientalism*, Penguin Books, Harmondsworth, Middlesex 1985, 참조.

⁵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94 참조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식민지 문학 작품을 탈식민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한다.

식민지 시대의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데 본 연구는 인도 문학가 뽀렘찬드(Premchand)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와 한국 문학가 신채호(Shin Chae-ho)의 <디구성미리몽>을 택하기로 한다. 뽀렘찬드는 인도 20세기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우르두어와 힌디어로 단편소설을 창작한 큰 개척자이다. 또한, 인도의 공용어인 힌디어는 그의 작품에 의해 생명력이 부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뽀렘찬드는 인도의 국보급 문학가이다. 그러므로 인도 문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뽀렘찬드를 모를 이가 없을 것이다. 뽀렘찬드는 1900년부터 문학 창작 생애를 시작하였고, 1908년에 그의 첫 번째 단편집 <조국의 고뇌: Soz-e-Watan>을 출판하였다. 또한, 학교 교사 일을 하다가 ‘마하뜨마 간디(Mahatma Gandhi)의 인도 독립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학교 일을 그만두고 투쟁에 힘을 기울였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작품의 창작 일은 계속 진행하였다. 뽀렘찬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및 마하뜨마 간디의 신봉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작품을 창작할 때 그는 주로 ‘궁핍하고 불쌍한 약자나 농민들의 생활, 사회의 폐단과 어두움 및 독립운동의 모습’에 대해 다루었다.⁷ 또한, 그의 글쓰기 기술과 내용은 매우 의미가 깊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생생하기 때문에 인도 전국 사람들, 곧 아동, 청소년 내지 노인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소설가로 손꼽혔다. 지금까지도 뽀렘찬드는 힌디어 장편과 단편소설의 제일인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한 번도 영어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지 못했었다.

신채호는 한국 20세기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국어와 국한문으로 소설과 수필, 논설 등을 창작한 애국 문학가이다. 김영민⁸에 따르면 그는 1910년 4월 내지 5월쯤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대한매일신보>에서 근무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되어 한일병합 직전인 1910년 8월 28일까지 발행되고 고종을 비롯한 한국 정부에서 발행되었던 신문이다. 이의 창간 목적에 있어 주변 열강의 침탈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는 당시 자신의 의사를 국제 사회에 알릴 방안을 찾으려 했던 설이 있다. 또한, 신문의 발행자인 영국인 배델(Ernest Thomas Bethell)이 상업적인 차원에서 이윤 추구를 하다가 주한 일본 공사관과 마찰하고 갈등 관계가 심화되었으나 한국인들과 고종의 측근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종으로부터 얼마간 자금이 지급되었다는 설이 있다. 신채호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뜨거운 구국의 정조를 가지고 집필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대한매일신보>의 가장 중요한 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는 뽀렘찬드가 1908년에 쓴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뽀렘찬드는 한 명 인도를 떠나 미국에서 60년이나 살다가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온 노인의 시각으로 당시 식민지 하의 인도 모습을 묘사하였다. <디구성미리몽>은 신채호가 1909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서 연재한 소설 내용이다. 이 소설에서 신채호는 당시 한국의 현황과 민족에 대해 실망해 한국을 떠나

⁶ Madan Gopal, *Premchand: Kalam Ka Mazdoor*, Rajkaml Parkashan, 2010, p.95.

⁷ 뽀렘찬드의 생애와 문학관에 대해 한국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정리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앞잘 아흐메드 칸, <신채호와 뽀렘찬드 소설의 비교연구> 석사논문, 경북대학교, 2011, 김규성, <뽀렘찬드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민중의식>, 석사논문, 외국어대학교, 1985.

⁸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소명출판, 2006, 63~64쪽.

해외로 나와 구경하는 대한제국 사람인 우세자의 시각으로 당시 일본 식민자 간섭하의 한국 모습을 묘사하였다. 두 작가는 각각 자신의 심정과 생각 및 사회의 모습에 대해 해외에 있다가 돌아온 주인공 및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나간 주인공을 통해 식민 시대 전의 국가 모습과 식민 시대에 들어간 후의 국가 모습에 대해 비교하는 시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탈식민의 시각으로 두 작가의 비교 관점을 가진 이 두 작품을 통해 당시 인도와 한국의 식민 문화 양상에 대해 분석 및 비교를 하고자 한다.

2.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와 인도의 식민 문화 양상

인도 수석 소설가인 뵤렘찬드(1880-1936)는 1908년에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라는 작품에서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과 결혼해 다섯 명 아들과 손자들을 둔 90세 인도 노인을 사용해 인도 식민지 문화의 양상에 대해 묘사하였다. 뵤렘찬드 시대의 인도 식민지 양상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मगर न जाने क्यों, मुझे रह-रह कर वतन के शिकस्ता झोंपड़े, और तरके की चन्द बीघा जमीन और बचपन के साथियों की यादें सताया करती थी।...

मैंने पहले काले-काले कोट पतलून पहने और टूटी-फूटी अंग्रेजी बोलते मल्लाह देखे। फिर अंग्रेजी दूकाने, ट्राम्वे और मोटरगाड़ियाँ नजर आयी।... फिर रेल का विक्टोरिया स्टेशन देखा।... उस समय मेरी आँखों में आँसू भर आये और मैं खूब रोया, क्योंकि वह मेरा देश न था। यह अमेरीका या इंग्लैंड था, मगर मेरा प्यारा भारत नहीं था।⁹

(웬지 모르게 나는 항상 조국의 허름한 오두막집,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몇 에이커 땅, 그리고 어릴 적 친구들이 그리고 간절히 보고 싶어 되었다.....

나는 먼저 검은 외투와 검은 바지를 입고 서투른 영어로 건방지게 말하는 인도인 선원을 봤다. 그 다음 영국풍 가게, 전차와 자동차를 봤다..... 그 다음에 빅토리아 철도 역을 봤다..... 그때 나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흘렀고 한없이 울었다.....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지, 나의 사랑하는 인도가 아니다.)

소설의 주인공 인도 노인이 미국에서 60년 동안 살다가 조국의 허름한 오두막집,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작은 땅, 어릴 적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그리워서 모든 것을 미국에 남기고 인도로 돌아오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봄베이(현재 뭄바이)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렸을 때 검은 유니폼을 입고 서투른 영어로 건방지게 대화하는 인도인 선원, 영국풍 가게, 달리는 전차와 자동차, 빅토리아 철도역 등 모습을 보고 눈물이 넘쳐흘러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머리 속에 한 가지의 생각만 들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이지 나의 나라 ‘인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언어, 쇼핑, 교통 등 문화가 인도인 및 인도에서 보인다는 것은 뵤렘찬드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에서 나타난 첫 번째 식민지 인도의 문화 양상이다.

⁹ Premchand, *Soz-e-watan*, Idara-e-naya safar Allahabad, 2008(edition), p.50.

गाँव के पास — यह वही नाला है जिसमें हम रोज घोंड़े नहलाते थे, और स्वंय भी डुब कियॉ लगाते थे।... किंतु अब उसके दोनों ओर काँटेदार तार लगे हुए थे। सामने एक बं गला था, जिसमें दो तीन अंग्रेज बंदूक लिये इधर-उधर ताक रहे थे। नाले में नहलाने या नहाने की सख्त मनाही थी।¹⁰

(고향 부근-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말을 목욕시키고 수영하고 놀았던 개 천이다. 하지만 개천의 양쪽에서 철조망 쳐져 있다. 그 앞에 하나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 총을 든 두 세 명 영국인이 지켜보고 있다. 개천 안에서 목욕은 절대 금지 되어 있다.)

노인이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다. 고향 마을 근처에 개천이 있었다. 그는 옛 날에 거기서 말을 목욕시키거나 친구들과 수영하고 놀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개천의 양쪽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앞에 하나 건물이 세워져 있다. 그 안에 총을 든 몇 명 영국인이 말을 지켜보고 있고 거기서 놀았던 일들은 모두 절대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취미 생활이 금지되고 자유로웠던 인도 땅에서 영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방어나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준 모습은 뽀렘찬드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 죠>에서 나타난 두 번째의 식민 양상이다.

गाँव पहुँचकर – निगाहें बालपन के साथियों को खोजने लगीं, किंतु अफसोस! वे सब के सब मृत्यु के गास हो चुके थे। मेरा घर – मेरा दूटा-फूटा झोपड़ा – जिसकी गोद में मैं बरसों खेला था, जहाँ बचपन और बेफिक्री के आनंद लूटे थे और जिनका चित्र अभी तक मेरी आँखों में फिर रहा था, वही मेरा प्यारा घर अब मिट्टी का ढेर हो गया था। यह स्थान गैर-आबाद न था। सैकड़ों आदमी चलते फिरते नजर आते थे, जो अदालत, कचहरी और थाना पुलिस की बातें कर रहे थे, उनके चेहरे पर चिंता, निर्जीवता और उदासी दिखाई दे रही थी और वह सब के सब सांसारिक चिंताओं से व्यथित मालूम होते थे। स्कूल में दुर्बल तथा कांतिहीन, रोगियों की-सी सूरतवाले कुछ बालक फटे कपड़े पहिने बैठे उँघ रहे थे। यद देश देखने में इतनी दूर से नहीं आया हूँ। मेरे साथियों के समान हष्ट-पुष्ट बलवान, लाल चेहरे वाले युवक कहीं न दिख पड़ते थे।¹¹

(고향-나의 눈길은 어렸을 때의 친구들 찾는 데에 집중된다. 그러나 아쉽게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나의 집-어렸을 때 오랫동안 걱정과 근심 없이 놀았던-의 그림자가 아직 나의 눈 속에 떠오르고 있는데 그 낯은 오두막집은 허물어져서 이제 흙더미가 되어 있었다. 지금 이 곳이 비거주지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재판소, 법무실, 파출소와 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생기를 찾을 수 없고 세상의 걱정거리를 안고 근심의 탈을 쓰고 있는 듯 했다. 학교에서 얼굴색이 안 좋고 기력이 없고 병자 같은 몇 명 아이들 남루한 천을 몸에 걸치고 굶주린 배를 움켜 쥔 채 멍하니 앉아 졸고 있었다. 나의 친구들은 혈기 왕성하고 패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멀리서 이렇게 되어 버린 모국을 방문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

소설의 주인공 노인이 고향 마을에 달려갔다. 그러나 어렸을 때의 친구들이 모두

¹⁰ Premchand, *ibid*, p.51.

¹¹ Premchand, *ibid*, p.51.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오두막집은 허물어져 흙더미가 되어 있었다. 노인의 고향이 아직 비거주지가 되지 않았지만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생기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이 법원, 재판소, 경찰서 등 이야기 하면서 세상의 걱정거리를 안고 근심의 탈을 쓰고 있는 듯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얼굴색이 안 좋고 기력이 없고 병자 같은 아이들이 남루한 천을 몸에 걸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멍하니 앉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옛날 시절에 이렇지 않았다. 옛날 사람들이 전부 혈기가 왕성하고 패기가 있는 대장부들이었다. 이 장면을 본 노인은 입에서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인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었다. 엄격한 경찰제도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 식민지 세력의 확산과 같이 영국에서 더욱더 체계화되었다. 망가진 집, 근심스러운 표정, 병든 몸, 남루한 옷차림, 굶주린 배 등 부정적인 모습과 영국 경찰제도가 인도로 들어온 것은 뽀렘찬드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에서 나타난 세 번째의 식민 양상이다.

में बरगद के पेड़े की ओर दौड़ा जहाँ हमने बचपन के बसंत के दिन बिताये थे।...

इस बरगद के निकट अब थाना था और बरगद के नीचे कुर्सी पर कोई लाल पगड़ी बाँधे बैठा हुआ था। उसके आस-पास दस बीस लाल पगड़ी वाले करमबद्ध खड़े थे। वहाँ फटे-पुराने कपड़े पहने एक आदमी, जिस पर अभी चाबुकों की बौछार हुई थी, पड़ा सिसक रहा था।... यह योरोप है, अमेरीका है, मगर मेरा प्यारा वतन नहीं है- कदापि नहीं है।¹²

(나는 어렸을 때 즐겁게 봄 시절을 보내던 반얀 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나무 옆에 이제 경찰서 생겼다. 나무 아래 의자를 놓고 빨간 터번을 두르고 거드름 피우며 한 명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스물 명이나 남짓의 부하들이 같은 터번을 쓰고 정자세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남자가 구두발에 채찍으로 심하게 맞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이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노인이 그에게 요람과 같은 따뜻함과 즐거움을 주던 반얀 나무 쪽으로 달려간다. 옛날에 그 반얀 나무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놀곤 했었다. 좋은 추억이 많은 반얀 나무였다. 그러나 지금 반얀 나무 옆에 경찰서가 생겼다. 나무 아래 의자를 놓고 빨간 터번을 두르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무 주변에 스물 명이나 남짓의 부하들이 같은 터번을 쓰고 명령을 기다리는 것 및 남루한 옷을 걸치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남자가 구두발에 채찍으로 심하게 맞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노인의 머리 속에 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이지 나의 조국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다. 요람은 따뜻하고 자상한 이미지를 가진다. 그리고, 터번은 인도인이 머리에 둘러 감는 수건이다. 요람과 같은 반얀 나무 옆에서 영국에서 진입한 경찰서 및 폭력 행위를 사용한 인도인 경찰들에 의해 인도 민중들이 고통에 시달리던 모습은 뽀렘찬드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에서 나타난 네 번째의 식민 양상이다.

चौपाल – पिताजी से जुड़ी यादें..., हम उस टाट बिछौने पर कलाबाजियाँ खाया करते थे।

¹² Premchand, *ibid*, p.51.

람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다. 가난한 순례자나 여행객이 머물 곳이 아니다. 이 것이 다른 나라다. 유럽, 미국 이다.)

노인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 60년 전 외국으로 떠나려 했을 때 공사가 시작된 순례자들의 쉼터로 찾아갔다. 건물은 훌륭하게 지어져 있으나 가난한 순례자나 여행객이 머물 곳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 장소가 되어 있다. 이는 노인인도 하여금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이지 절대로 인도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였다. 순례자들의 쉼터였던 건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장소가 아닌 돈을 내어 쾌락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물이 된 모습은 뵤렘싼드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에서 나타난 일곱 번째의 식민 양상이다.

में अपना दुखित हृदय ले कर उसी नाले के किनारे जा कर बैठ गया और सोचने लगा
।... अब मेरा कोई देश नहीं है।... घंटे ने तीन बजाये और किसी के गाने का शब्द कानों
में आया। हृदय गदगद हो गया कि यह तो देश का ही राग है, यह तो मातृभूमि का ही
स्वर है। मैं तुरंत उठ खड़ा हुआ और क्या देखता हूँ कि 15-20 वृद्ध स्त्रियाँ, सफेद धोति
याँ पहिने, हाथों में लोटे लिये स्नान को जा रही हैं।...यही तो मेरे प्यारा देश है।¹⁶

(나는 개천 쪽으로 다시 돌아와 앉아서 비통함에 잠겼다: 나 조국이 이제 없다. 새벽 3시 후,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조국의 가락, 내 조국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했었다. 나는 금방 일어섰다…… 늙고 힘없어 보이는 몇 명 여인들 하얀 전통 옷을 몸에 두르고 손에는 청수 향아리를 들고 목욕하러 가면서 노래하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조국 이죠.)

실망한 노인은 자신에게 조국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고향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왔었던 개천 근처로 왔다. 새벽 3시 후 노래 부르는 소리가 그의 귀속에 들려왔다. 이것은 바로 노인 조국의 가락, 노인 조국의 문화적 전통적 음성이다. 늙고 힘없어 보이는 몇 명 여인들 색도 무늬도 없는 인도의 하얀 전통 옷을 두르고 손에는 청수 향아리를 들고 목욕하러 가면서 노래하던 것이다. 노인은 이제 드디어 ‘이것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조국 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낮 동안 노인이 아무리 찾아도 조국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밤이 지나 새벽 3시에야 전통 노래로 신에게서 축원을 빌리는 조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조국의 모습은 늦은 밤이 지난 새벽 때에야 볼 수 있는 것은 뵤렘싼드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에서 나타난 여덟 번째의 식민 양상이다.

मेंने अपना पुराना कोट और पतलून उतार कर फेंक दिया और गांगा माता की गोद में जा गिरा। जैसे कोई भोला-भाला बालक दिन भर निर्दय लोगों के साथ रहने के बाद संध्या को अपनी प्यारी माता की गोद में दौड़ कर चला आये और उसकी छाती से चिपट जाता है।¹⁷

(나는 오래된 외투와 바지를 벗어 던지고 갠지스강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잔인한 사람과 같이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 포근

¹⁶ Premchand, *ibid*, p.53.

¹⁷ Premchand, *ibid*, p.55.

한 모친 품에 안겨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기분이었다.)

조국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쁜 노인은 오래된 양복과 바지를 벗어 던지고 갠지스강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잔인한 사람 과 같이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 포근한 자기 사랑하는 모친의 품에 안겨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기분이라고 하였다. 노인이 하루 종일 양복을 입다가 새벽이 되어 양복을 벗고 어머니의 품인 갠지스강의 품에 안겼다는 행동은 낮 동안에 식민자의 가면을 쓰고 밤이 되면 식민자 가면을 벗은 조국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른 인도인 행동은 뽀렘판드의 <이것이 나의 조국이죠>에서 나타난 아홉 번째의 식민 양상이다.

앞서 분석한 아홉 가지의 인도 식민 문화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시, 고향 부근, 고향 마을, 여행객 대접 및 낮과 밤’의 다섯 가지 인도 문화 양상으로 축약할 수 있다.

<p>(1) 도시 언어: 서투른 영어 상점: 영국풍 가게 교통: 전차, 자동차, 빅토리아 철도역</p>	<p>(2) 고향 부근 취미 생활: 자유 금지 지킴이: 영국인 도구: 철조망, 총 태도: 공격, 방어</p>	<p>(4) 여행객 대접 손님 문화: 소멸 순례자 쉼터: 쾌락 공간</p>
<p>(3) 고향 마을 친구: 별세, 토지: 황폐, 건강: 병자, 경제: 남루한 옷, 굶주린 배, 관심사: 재판소, 경찰서, 놀이터: 경찰서 관리자: 터번을 쓰는 인도인 경찰, 태도: 폭력적, 민중: 억압, 신음, 집회소: 우체국, 사탕수수 기계: 실 기계</p>		<p>(5) 낮과 밤 새벽 3시 전: 미국이나 유럽이다. 양복과 바지를 입는다. 새벽 3시 후: 진정한 조국이다. 양복과 바지를 벗는다.</p>

3. <디구성미림>과 한국의 식민 문화 양상

한국은 1895년에 중국과 일본이 청일 전쟁 이후 맺은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인해 청나라의 봉건적 지배에서 벗어났다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또한, 1910년부터 ‘한일합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한국 애국 지식인이자 문학가인 신채호(1880-1936)는 여러 작품을 창작하여 1909년에 <디구성미림>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 이 소설에서 단재는 우세자¹⁸라는 애국 인물을 사용해 1909년까지 제국주의 식민자인 일본제국의 보호국으로서 한국 문화 양상에 대해 묘사하였다. 신채호 눈에 보이는 1909년대의 한국의 식민 문화 양상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백여 년 전에는 스무가 이다지 번극히지 안터니 근릭에는 더 망국 민족들

¹⁸ 우세자(憂世子):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권영민, <풍자 우화 그리고 계몽담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137쪽.

을 처치하기에 대단히 골몰하여 안비를 막기하며 또 이전에는 사람의 상벌을 처결하여 동서양 각국에 룬회환싱케 하더니 지금은 망국 민족 중에 죄 없는 자를 환싱케 하고져 하나 다른 도흔 나라에 보내려 하면 그곳 산천 신령이 다 슬희여하고 제 나라로 보내려 한즉 그곳은 타국 식민이 이의 구역마다 가득이 찻스니 다시 변통무로요...¹⁹

신채호는 한국 식민 전의 모습과 식민 후의 모습에 대해 영라부의 장면을 통해 보여주었다. 식민자의 지배를 받은 자를 망국 민족들로 지칭한다. 옛날의 영라부 사무가 단순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상벌을 명확하게 처결할 수 있어 동서양 각국으로 룬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망국 민족들로 인해 영라부의 사무가 번거로워졌고 사람의 상벌을 처결하지 못해 사방각국으로 룬회하게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망국 민족 중에 죄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을 좋은 곳으로나 식민자가 가득찬 제 나라로 환생하게 하지 못한다. 결국은 망국 민족들로 인해 곤란한 영라부는 간접적으로 식민자가 가져온 피해를 입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망국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라부에서 집행하는 ‘환생’의 일은 그 의미가 평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정의의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곧, 영라부는 식민자가 오기 전까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피식민자인 망국 민족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식민자로 인해 죄 없는 자들이 정의의 판결을 얻지 못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양상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신채호 <디구성미리몽>에서 나타난 첫 번째의 식민지 문화 양상이다.

인급 인도 파란 월남 여러나라의 몇 억만 인종이 오는 뒤로 다시 가든 못하니 이런 좁은 구역에 모라 두기만 하면 몇 히 못되여서 영라부는 망국 민족의 세계가 되겟스즉 그 아니 걱정이뇨 이 일노써 부중에서 날마다 회의를 하나 지금까지 결말이 업스니...²⁰

신채호가 이 글을 쓴 당시는 이집트, 인도, 폴란드 및 월남(베트남) 등 나라들이 이미 식민지로 전락된 상태였다. 한국은 일본 보호국의 명의로 처신되어 있었지만 식민자의 보호국으로서 식민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고 해야 한다. 영라부는 바른 판결을 내리는 기관인데 지금 피식민자들을 받아주는 세계로 되어 버린다. 여기서의 영라부는 식민을 받기 전의 망국 나라의 정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 망국 나라들의 정부는 옛날에 자기 백성들에게 평등하고 무차별화한 대우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식민자의 간섭으로 인해 환생, 곧 정의를 신장하지 못해 온 나라가 망국 민족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 망국 나라의 정부를 상징한 영라부는 망국 민족의 세계가 되겠다는 본문은 식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다. 이 상황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해당된 나라의 정부와 애국 지식인들이 고민해야만 했었다. 이렇듯, 식민자에 의해 피식민지를 상징하는 부중에서 망국인 수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영라부답지 않은 영라부가 망국인 회수장으로 되어 버리는 것처럼 나라가 나라답지 않은 아수라장으로 되어 버린 장면은 신채호의 <디구성미리몽>에서 나타난 두 번째의 식민 문화 양상이다.

¹⁹ <디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7/17.

²⁰ <디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7/18.

아모리 참혹할 지라도 디옥 몇 만간을 더 지어 그 속에 모라 너코 그 문을 영영 봉쇄하면 도로나 좀 정결하리라 하고 혹은 망국 인종이 히마다 놓고 돌마다 더하니 디옥을 짓는 디로 차면 쌍도 한명이 있지...(중략)... 찰하리 더 인종들을 소나 몰이나 개나 도야지로 환싱케 해야 더 빈약한 나라에 보내어 우리 부중을 안정케 훔이 도타 하고

혹은 모라다가 불에 튀오자 하고 혹은 물에 씌우자 하며 혹은 모다 방아에 바슈자 하고 혹은 믹스돌에 갈자 해야...²¹

식민자의 침입에 의해 열라부 곧, 망국 나라의 정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한다. 망국 민중들의 증가를 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지옥을 지음으로써 그들을 처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옥을 짓는 땅에 제한이 있으니 망국 민중들을 소나 말이나 개와 같은 짐승의 대우로 부리는 판결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당시 식민자 및 제국주의자 지도자들이 피식민자를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 소, 말, 개, 돼지 등 짐승의 대우로 일을 시키거나 괴롭혔다가 반항하면 잔인하게 때리거나 죽이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망국 나라의 정부가 식민자 문화를 모방하는 것과 피식민자들이 입은 참혹한 피해는 신채호의 <디구성미리몽>에서 나타난 세 번째의 식민 문화 양상이다.

나는 보건되 더 망국 인종에 짐짓 작죄한 자도 있고 모르고 작죄한 자도 잇스나 가장 무죄하고 불상한 자는 나라를 위하여 몸을 도라 보지 아니하다가 힘이 맞지 못하여 조살하든지 혹 덕인의게 죽은 사름들이야 엇지 망국인으로 디우를 허리마는 환싱할 곳은 쏘흔 업스니 그 아니 참혹하며²²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들이 전부 망국인의 대우로 받아야 했다. 곧, 피식민자들이 식민자를 받아들이며 저항하며 두 가지 의식과 행위를 하는 피식민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환생, 곧 평등한 대우, 정의의 판결을 받지 못하였다. 죄가 없는 자라면 환생, 곧 정의의 판결을 얻지 못할 리가 없다. 이와 같은 차별화 양상은 신채호의 <디구성미리몽>에서 거듭 나타난다.

법스 | 왈 인도와 대한 형편을 말노는 다하기 어려오니 우리 동행하야 옥경에 가서 그 형편을 조세히 목도하는 거시 엇더하뇨...(중략)...

옥경에서 괄되가 업슬 터이오 쏘 옥경에 원찰되가 잇스니 그 곳에 올라보면 다만 인도와 한국만 볼 뿐 아니라 텃하 만국형편이 모다 눈 압헤 잇스니..²³

신채호를 대변하는 작중인물 우세자는 한국을 떠나 세계를 유람하다가 수미산에서 인도 법사를 만났다. 법사와 한참 망국에 대해 토론하다가 옥경에 동행해서 가기로 하였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옥경은 불평등과 차별화(괄대)가 없는 곳이고 또한, 거기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천하의 문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을 통해 옥경

²¹ <디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7/18.

²² <디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7/18.

²³ <디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7/30.

은 반드시 피식민자가 존재하는 곳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창궐한 20세기 초반에 불평등과 차별화 현상이 없는 곳은 오직 피식민자가 없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옥경은 피식민자 출입 금지의 지역이자 식민자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 해석된다. 우세자와 법사는 망국 피식민지의 상황을 보러 피식민자가 존재하지 않은 옥경에 간 이유는 식민자를 통해서 피식민지의 식민자 문화 양상을 관찰하려고 한 것이었다. 곧, 신채호가 <지구성미리몽>에서 피식민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식민자의 입장을 통해서도 당시의 식민 문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세자 | 왈 옥경문이 더러듯 굳게 닫치엿스니 엇지 열며 쏘 천장만장을
 엇지 오르리오. 법스 | 왈 선싱은 넘려마르쇼셔 이 문이 본릭 주시로브터 유
 시스지 열어 두고 그 다음에는 닫치느니 우리가 더디 와서 시간을 어긋였스
 나 쇼승은 익히 왕릭흔 고로 도리가 잇스니 다만 선싱은 쇼승 뒤만 짜르쇼
 셔²⁴

피식민자가 존재하지 않는 옥경에서는 ‘굳은 문’에 의해 식민자의 방어지심이 강해 보여지게 된다. 또한, 문이 열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이는 침략자인 식민자의 경계심을 보여준다. 피식민자가 존재하지 않는 옥경은 피식민자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자는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굳게 수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옥경이라는 공간은 피식민지이자 식민자의 지역임은 틀림없다.

소설의 주인공 우세자를 인도하는 법사는 인도 망국 민중의 신분을 갖고 있으나 망국 민중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는 식민자가 피식민자에 대한 구분 개념이 매우 불명확한 것임을 나타낸다. 곧, 식민자는 결국 피식민자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식민자는 모두 옥경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피식민자에 대한 불확실한 개념의 양상은 신채호의 <지구성미리몽>에서 나타난 식민 문화 양상의 하나이다.

법스 | 왈 바랑을 열고 지필을 내어 보증서 일장을 써서 주니 흐엿스되
 우세자
 쥬지 지구성 동반구 한국 직업 독서
 우인이 옥경에 유람하기 위하야 남문에 입홀 시에 초 증서를 적흠
 연월일 보증인 원장법스²⁵

신채호가 이 작품을 연재했을 때 나라의 국호는 ‘대한제국’이었다. 줄여서 지칭하면 ‘한국’이다. 주인공 우세자는 인도 법사와 같이 옥경에 와서 자신이 지구성 동반구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 소개한다. <지구성미리몽>이라는 작품 이름은 ‘지구성 미래에 대해 상상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곧, 인도 인물인 법사와의 대화는 신채호가 대한제국의 미래인 ‘일제강점기 하의 한국’에 대해 미리 예상해 놓는다는 내용이다. 식민지 문화 양상에 대해 신채호는 환상적이고 알레고리적 기법으로 보여

²⁴ <지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7/31.

²⁵ <지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8/1.

준다. 특히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식민자의 문화 양상은 전부 피식민자의 지역이자 시민자의 관리 지역인 옥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식민지에 있는 식민자 문화 양상들은 식민 문화의 양상이기도 한다.

한 언덕에 올라 바라보니 과연 백옥세계라 구천팔푼 방리 썸 되는 들에
고루거각이 즐비하야 그 제도는 양옥곳치 칠팔층 흑 십여 층인디 모다 백옥
을 각기 지엇고 중앙에서 스방을 통한 대로와 방방곡곡에 쇼로는 모다 금강
석긋흔 돌을 싸라 퇴설 한 점이 업고 은빛 곱흔 큰 하슈는 중심을 그어 흐르
는디 무지기긋흔 열교는 곳곳 싸쳐 왕리흔는 사롬이 락역부절하더라²⁶

신채호가 상상한 지구성 미래의 모습에 있어 식민자의 문화에는 백옥세계, 구천 팔푼이 방리나 되는 넓은 들에서 백옥이나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칠층 내지 십여 층이나 되는 큰 양옥들, 정결하게 되어 있는 도로, 금강석 같은 돌로 깔린 도로, 곳곳 뻗친 무지개 같은 철교 등이 있다. 신채호는 옥경에 있는 식민자의 문화를 묘사함으로써 나라가 식민자의 지배를 받게 되면 식민자의 문화 양상을 그대로 복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북문 밧그로 나가니 그곳이 극히 광활하야 슈석이 청결하고 림천이 유슈
흔디 초가도 잇고 와가도 잇스니 그 제도가 극히 정쇄하야 ...(중략)... 각식
화초와 괴석이 일망무제 흔디 툼툼이 스통오달흔 길이 거의줄 얼키듯 하엿
더라

이리러 더리 두루 구경할 제 흑 쥬렴 속에서 거문고 소리도 나며 흑 덩즈
우에서 이삼 로인이 바둑도 두며...²⁷

신채호는 옥경에서 다양한 식민자의 문화를 구경하다가 그에 섞인 한국 전통의 초가집도 보이고 기와집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거문고의 소리도 들리고 바둑 두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또다시 피식민자 출입 금지 지역에서의 식민자 문화 양상의 모순을 나타낸다. 식민자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결국은 피식민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항상 모순의 양상을 가진다. 이러한 모순 양상은 식민자의 문화이기도 한다.

로승왈 선싱의 성화를 일죽 듯지 못하엿슴으로 즉시 영접지 못하엿스니
선싱은 용셔하쇼서 쇼승은 히월존즈라 칭하논디 ...(중략)...
우세즈 | 존즈를 싸라 당상으로 올라갈시 ...(중략)...
그림 속과 방불하더라.²⁸

해월은 조선시대 민족 종교인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이 사용하던 호이다. 최시형은 당시 조정에 교조의 신원, 포덕의 자유 및 탐관 오리 숙청을 요구하였고 1894년에 10만여 병력을 일으켜 동학농민운동에 호응하였다가 1898년에 체포되어

²⁶ <지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8/1.

²⁷ <지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8/5.

²⁸ <지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8/10.

교수형을 당했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신채호는 해월존자인 최시형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꿈에서는 가능했다. 이 연재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그림 속과 방불하더라’라는 문장으로 끝내는 것은 신채호가 현재의 공간 및 미래에 대해 꿈꾸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 식민 문화 양상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민 전	나라	사람	선인	평등	자유 왕래	고유 문화
식민 시대	지옥	짐승	죄인	불평등	왕래 제한	식민자 문화

4. 인도와 한국 작품의 탈식민성 비교 연구

‘탈식민은 식민주의의 종말 이후에 도래한 시기’에 곧, ‘유럽의 식민주의적 권력이 통치하던 지역’에서 ‘서구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²⁹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론이다. 그러므로 탈식민은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관계에 대해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의미한 이론이다. 식민자는 우선 무력으로 피식민자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군사력 면에서 식민자는 강하고 피식민자는 약하다. 군사력이 강한 자에 의해 군사력이 약한 자는 여러 면에서 억압을 받게 되고 자유를 잃게 된다. 이는 식민지 문화에서 줄곧 나타나는 이원대립의 양상이다. 사이드에게 문화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즉 제국주의자와 탈식민주의자가 대립하는 지형 중 하나이다.³⁰ 그러나 식민 문화에서 식민자는 반드시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피식민자는 항상 위협만 받고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곧, 식민지에서의 식민 문화에는 위와 같은 이원대립의 양상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이 존재하는 뜻이다. 사이드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차이와 대립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바바는 자주 그들 간의 유사점을 탐구한다.³¹ 곧,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가 되려는 식민주의적 환상, 조소의 대상인 동시에 욕망의 대상임을 말하는 양가성,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동시에 가상적인 현존으로서의 식민적 권위를 반복함으로써 권위가 기반하고 있는 차이와 힘을 교란시키는 ‘그 권위의 전략이자 차별적 지식의 형태이자 위협적인 환유적 정체성의 표현’인 흉내 및 ‘인지, 흉내, 조롱의 책략으로 식민적 권위를 위협하는’ 식민적 권위의 내용과 형식의 반환임을 말하는 혼종성 이다.³² 그러므로 식민지 시대의 식민 문화 양상에서 나타난 탈식민성을 알아보는 데 양가성, 흉내 및 혼종성의 개념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의 인도 식민지 문화 양상은 90세의 인도 노인에 의해 다양하게 정리된다. 장소에 따른 분류는 주로 도시와 고향 부근 및 고향 마을이 있다. 또한, 조국 전통의 풍습과 조국을 찾는 인도 노인의 심정에 따라 여행객 대접 풍습 및 낮과 밤

²⁹ 피터 차일즈 외,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17~39쪽.

³⁰ 피터 차일즈 외, 위의 책, 228쪽.

³¹ 피터 차일즈 외, 위의 책, 254쪽.

³² 피터 차일즈 외, 위의 책, 258~78쪽 참조.

의 조국 모습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것에 나의 조국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식민 시대의 인도 모습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다. 곧, 현재 눈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인도의 모습은 60년 전³³의 인도 모습과 인도 문화의 양상이 아니고 식민자의 침입으로 인해 생기게 된 식민지의 문화 양상이라는 뜻이다. 다른 한편은 한국의 식민지 문화 양상이 세상을 우려하는 작중인물 우세자, 곧 신채호의 설명에 따라 정리된다. 그는 ‘지구성의 미래에 대해 상상한다’라는 ‘디구성미리몽’의 제목으로 식민 시대의 한국 모습에 대해 우려하는 심정을 보여주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우리는 식민지인 한국의 상황을 식민 전의 모습과 식민 시대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듯 인도 작가인 뵘썬드와 한국 작가인 신채호는 각각 자기 나라의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식민 되기 전의 모습과 비교하며 묘사하였다. 또한, 뵘썬드는 인도의 식민 전과 식민 시대의 문화 양상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였지만 신채호가 명확하게 분류한 유형과 달리 오직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이지’로만 마무리하였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식민 전 및 식민 시대의 문화 양상을 비교할 때 신채호의 작품에서 나타난 한국의 식민 문화 양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인도의 식민 문화 양상을 분류하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식민 문화 양상		인도 식민 문화 양상	
식민 전	식민 시대	식민 전	식민 시대
나라	지옥	부유한 인도 문화와 전통을 가진 고향 마을의 모습	소멸되어 가는 인도 문화와 살아져 가는 전통 마을의 모습
사람	짐승		
선인	죄인		
자유 왕래	왕래 제한	고향 부근, 고향 마을	
평등	불평등	도시, 고향 부근, 고향 마을, 여행객 대접, 낮과 밤	
고유 문화	식민자 문화		

사이드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식민 문화 양상은 ‘나라-지옥, 사람-짐승, 선인-죄인, 자유 왕래-왕래 제한, 평등-불평등, 고유 문화-식민자 문화’와 같이 이원대립의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인도에서의 이러한 이원대립의 식민 문화 양상은 각각 고향 마을, 고향 부근 및 도시/고향 부근/고향마을/여행객 대접/낮과 밤의 모습에서 나타남으로 한국과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바가 말하는 탈식민 개념은 두 나라의 식민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첫째, 혼종성이다. 혼종성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피식민자로부터 오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자아 인식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식민자의 권위에 위협을 가쳐올 수 있는 것이다. 신채호는 작품 속에 언급한 “제 나라로 보내려 흔즉 그곳은

³³ 뵘썬드는 1908년에 이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의 시공간을 60전과 60년 이후에 두고 비교한다. 60년 전의 인도로 설정한 것이 바로 1858년 전의 인도, 즉 아직 공식적으로 식민지에 전락 되지 않은 인도를 말한다. 인도에서 첫 반대영제국 세포이 항쟁은 1857년에의 인도인 용병들이 일으킨 것이고 이때까지 영국인들이 인도를 간접적으로 동인도 회사를 통해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포이 항쟁이 실패되자 1858년부터 인도가 공식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그 후부터 인도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타국 식민이 이미 구역마다 그득이 찻스니”라는 문장을 통해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타국 식민”의 존재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본국인’들이 쫓겨남을 당해야 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처지는 식민 지배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제공한다. 또한, 인도 법사는 피식민자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자와 같은 “자유 왕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듯 같은 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편에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 양자의 모호한 경계선은 식민자 권위를 와해시키는 힘이 된다. 이러한 혼종성 현상들은 식민 전의 나라가 식민 시대의 지옥으로 되었다는 내용과 식민지에 존재하는 식민자 문화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모호한 경계선은 뽀렘판드의 작품에서 거듭 나타났다. 곧, 사랑하는 모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에 있다는 믿음이 와 닿지 않고 자신이 위치하는 곳은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심정인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지 나의 조국이 아니다’ 및 ‘이게 유럽이나 미국이다’이다. “사랑하는 나의 모국이 어떻게 유럽이나 미국과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라는 심정에서 우리는 혼종성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는 식민자의 권위를 동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외에 집회소에서 우체국으로 변화되는 것, 순례자들의 쉼터에서 사람들의 쾌락 장소로 변화되는 등 다양한 내용에서 혼종적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둘째, 양가성이다. 양가성은 식민자가 식민자인 동시에 피식민자가 되려는, 조소의 대상인 동시에 욕망의 대상을 말한다. 고향 근처에서 뽀렘판드가 말하는 ‘총을 든 영국인이 망을 지켜보고 있고 자유로운 취미 생활을 금지시키며 방어나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식민자는 피식민자들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보이면서도 인도인들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는 양상이 보인 것은 바로 그런 예이다. 이는 신채호가 말하는 왕래가 자유로웠던 지역을 자유롭지 못하게 제한시키는 ‘굳은 문’에 의해 식민자의 방어지심이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식민자는 피식민자의 지역을 통치하면서도 피식민자를 방어한다. 또한, 피식민자 지역에 위치한 식민자의 지역인 옥경에서 경험한 “초가도 잇고 와가도 잇스니…거은고 소리도 나며…”를 통해 피식민자를 배제하고 방어하려고 하면서도 접근하고자 하는 식민자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식민자인 동시에 피식민자이기도 한 양가성의 모습이다. 이러한 양가적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식민자의 권위와 힘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셋째, 흉내의 모습이다. 흉내는 피식민자로서의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식민자에 대한 모방인데 똑같이 따라하는 모방은 아니다. 거의 똑같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차이에서 조롱과 파괴의 힘을 내재한다. 즉, 흉내는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닮아가되 차이가 남는 것에 의존한다. 이러한 흉내는 식민 지배에 혼란의 효과를 가져 와 식민자의 권위를 희롱한다. 뽀렘판드가 언급한 ‘서투른 영어로 건방지게 대화하는 인도인 선원’, ‘나무 아래 의자를 놓고 빨간 터번을 두르고 거드름 피우며 앉아 있는 사람’, ‘여행객을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는 손님 문화의 소멸’, ‘낮에 서양식 옷차림을 하고 밤에 서양식 옷차림을 벗은 것’ 등 내용을 통해 우리는 피식민자들은 식민적 권위를 반복함으로써 식민자를 모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방은 식민지의 화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장(camouflage)이다. 식민자는 피식민자로 하여금 문화, 제도, 언어 등 관습을 떠라 하게 함으로써

식민자를 모방하도록 하지만 그 결과는 결함이 있는 복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신채호가 언급한 “아모리 참혹홀 지라도 디옥 몇 만간을 더 지어 그 속에 모라 너코 그 문을 영영 봉쇄하면...우리 부중을 안정케 훔이 도타 하고...”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당시 피식민자이자 망국의 정부가 자기와 같은 피식민자인 민중들에게 가해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민자를 모방하도록 하는 피식민자의 행위 중의 하나다. 식민자의 강요로 인해 피식민자들은 적극적으로 모방하거나 소극적으로 복종한다. 그러나, 대부분 피식민자들은 희생을 당한다. 이와 같이 완전하지 못한 영어의 훔내내기나 완전한 안전을 얻지 못한 피식민자들의 모습은 위조한 모방과 복제에 불과한 것이다. 피식민자들은 식민자를 훔내 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차이가 생긴다. 그러한 차이로 인해 인도와 한국에서 피식민자들이 식민자를 훔내 념과 동시에 식민자의 권위가 조롱되고 부실해진다. 인도와 한국의 작품에서 나타난 식민 모습의 공통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혼종성	인도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지 나의 조국이 아니다.
	한국	인도 법사의 자유 왕래 및 우세자의 왕래 제한의 현상 공존 타국 식민 및 윤회환생 하지 못한 망국 민족들의 공존
양가성	인도	총을 든 영국인의 방어지심↔망을 지켜보는 점령 야심.
	한국	굳은 문에 의한 방어지심↔초가, 와가, 거문고에 의한 점령 야심
훔내	인도	서투른 영어로 건방지게 대화하는 인도인 선원. 낮에 양복을 입고 밤에 양복을 벗는다.
	한국	지옥 몇 만 간을 더 지어 그 속에 몰아넣고 그 문을 영영 봉쇄함.

이렇듯 우리는 인도와 한국의 식민 문화 양상의 공통점을 찾는 데에 있어 뵤렘짚드와 신채호의 작품을 통해 각종 혼종성, 양가성 및 훔내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들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대립 관계를 흔들고 특히 지고무상의 식민자의 권위를 위협한다. 소위 우월과 열등의 이원대립 구조보다, 혼종적이고 양가적인, 또한 훔내의 식민 문화 양상은 식민자의 권력을 와해시키는 피식민자로서의 저항에 있어 가능성이 크게 형성되는 것이다.

5. 결론

인도의 대영제국 식민지 시대의 문학 연구에 있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문학가는 뵤렘짚드(Premchand), 타고르(Tagore), 만투(Manto),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거둔 작가는 뵤렘짚드로 손꼽을 수 있다. 다른 한 편은 한국의 일제 강점기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채호는 최근에 매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작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애국 작가일 뿐만 아니라 생년과 기일은 같은 것이다. 또한, 인도와 한국은 똑같이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였고 2차 세계대전 후에 해방을 얻었지만 각각 하나에서 두 나라로 분단하게 된 것이다. 그

러므로 인도와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인도인으로서 양국의 식민지 시대 문학 작품에 대해 분석하여 의미가 있는 공통점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하여 두 나라의 작품을 바라볼 때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이원대립을 초월한 더 광범위한 시각으로 식민지 시대의 인도와 한국 작가가 쓴 작품에서 나타난 반식민, 반제국적 요소와 아울러 혼종적이거나 양가적 및 흥내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식민주의의 역사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그 시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당시의 진정한 식민 문화의 모습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뽀렘짚드와 신채호의 문학은 현재의 우리에게 식민지 시대의 경험을 기억하게 하면서 과거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잔류해 온 식민의 문화 양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곧, 단순히 이원대립의 문화 양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틀을 해체하고 더 다양한 혼종적, 양가적 및 흥내의 문화 양상이다. 이와 같이 식민지에서의 탈식민적 모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날 분단된 국가의 난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식민지 시대에 나타난 혼종성, 양가성 및 흥내 현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현재 인도와 한국이 각각 두 나라로 분단된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들며 어째서 오늘날에 각 두 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는가를 질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 작품에서 나타난 식민 모습에 대한 이해가 오늘의 국제 국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필수적 수단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Premchand, *Mansarovar- 8 volumes*, Parkashan Sansthan, 2008.
Premchand, *Soz-e-Watan*, Adara-e-nayasafar Allahabad, 2008(edition).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 신채호 전집>, 독립기념관, 2008.
신채호, <디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1909.

단행본과 논문자료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94.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 Grove Press, New York, 2008.
Madan Gopal, *Premchand; Kalam Ka Mazdoor*, Rajkaml Parkashan, 2010.
Said, Edward W., *Orientalism*, Penguin Books, Harmondsworth, Middlesex 1985.
권영민, <풍자와 우화 그리고 계몽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_____,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9.
김규성, <뽀렘짬드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문중의식>, 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1985.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소명출판, 2006.
이옥순, <인도현대사>, 창비, 2007.
칸, 아프잘 아흐메드, <'디구성미리몽'의 비교 연구>, 제8회 세계 한국학센터 컨소시엄 워크샵, 민족문화원, 고려대학교, 2012.
칸, 아프잘 아흐메드, <신채호와 뽀렘짬드 소설의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1.
피터 차일즈 외,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